

香嚴和尚云，如人上樹，口嚼樹枝，手不攀枝，脚不踏樹，樹下有人，問西來意，不對即過他所問，若對又喪身失命。正德時，作禪生對。

한형조 무문관 탐방

8 **향엄의 나무위 사람**

*향엄화상이 말했다. "가령, 누가 나무에 올라 갔다고 하자. 손으로 가지를 잡지도 않고 디디고 선 발판도 없이 다만 입김으로 가지를 물었다. 그때 나무 아래서 누가 '달마가 서쪽에서 건너온 뜻'을 묻는다면 어쩔 것인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대답하려 한다면 팔아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 해가 말한다. "은하수를 풀어먹이는 달변도 소용없고, 팔만 사천 법문의 해설도 도무지 소용없다. 다만 여기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때까지 죽어 있던 길을 살려내고, 이때까지 살아 있던 길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정거린다면, 먼 훗날의 미륵을 기다려 구걸할 밖에."

*송하여 가로되, "향엄

지갈 하나가 나무에 부딪쳐 딱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예기치 않은 소리에 문득 향엄의 침묵같은 마음이 열렸다. 부모 이전의 자기를 선연히 깨달게 되었던 것이다. 목욕재계하고 향을 피워 위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 은혜 부모보다 높습니다. 그때 만일 친절을 배부셨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향엄(香嚴)의 증상은 독특한 매력이었다. 입체나 운문처럼 엄중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조동(曹洞)처럼 면밀하거나 재치있지 않다. 그러면서 장강의 깊이를 갖고 있다. 향엄의 이야기가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족을 풀기 전에 제기된 이야기의 후반부를 덧붙여 주는 것이 좋겠다. 향엄이 이 질문을 던지자, 호두(虎頭)라는 사람이 성를 나섰다. "나무 위에 올라간 자의 일을 말씀해 주시오." 이 말에 향엄이 가대소했다. (是時有虎頭上座，出問，上樹則不問，未上樹時，請和尚道。師呵大笑.)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무 위의 일은 무엇이고 나무 아래의 일은 무엇인가. 호두의 대답에 왜 향엄이 가대소했는가. 이를 두고 누가 이렇게 물었다. "향엄은 관시리 나무 위로 올라가



"달변 소용없네... 죽은길 살려라"

도적들의 수수께끼 풀면 생사 헛바퀴 벗어나

은 정말 엉터리라. 짓궂기가 한이 없어. 남승의 입을 물어먹아, 온몸에 도깨비불 번쩍거리게 해네."

향엄(香嚴)은 앞에서 본 여우의 주인공 백장의 제자이다. 그의 깨달음은 간고한 데가 있다. 총명한 자질에 학식이 뛰어났던 향엄은 처음 백장 문하에서 수년을 지냈으나 근본 소식을 들지 못했다. 백장이 천화(漚化)하자, 사형인 위산(山靈祐 711~853)에게 갔다. 위산이 물는다. "듣자니 자네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열을 물으면 백을 대답한다는데, 그런 잡다한 지식을 떠나 생사의 근본과 부모가 태어나기 전의 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어디 말해보라." 향엄은 눈 앞이 어질했다. 속소에 돌아와 그 동안의 저작과 노트를 다 뒤적여 보았어도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향엄은 탄식하며 위산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위산은 냉엄하게 거절했다. "애기를 해 줄 수는 있다. 하나 그랬다간 나중에 틀림없이 너는 날 원망할 것이다." 매물찬 대답에 향엄은 인연없는 불법을 한하며, 그저 유량 결승승으로 한 세상 마지겠다며 울면서 위산을 떠났다. 각지를 떠돌다가 남양(南陽) 혜충국사(慧忠國師)의 유적 근처에 처소를 정했다. 여느때처럼 밭에 나가 풀을 뽑고 짐을 매고 있는데, 무심코 집어던진

평지 풍파를 일으켰고, 나무 아래서 근원을 궁구해 호두에게 웃음으로 답했다. 나무 위에 올라 향상의 도리를 밝힐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어찌 나무 밑 고요의 사바하만 같겠는가. (香嚴上樹，香嚴樹上鼓風波，樹下窈窕笑答他。上樹更能明向上，爭如靜處處深淵。)" 이 이야기를 듣고 (백암록)의 저자 설두(雪竇)가 나서서 이렇게 자신했다. "나무 위에서 대답하기는 쉽지, 나무 밑에서 대답하기가 어렵다.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테니 어디 한번 물어보시구라(樹上道即易，樹下道即難，老僧上樹也，致將一問來)"

여기에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향엄',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의 소식을 알려 달라는 '호두', 그리고 한술 더 떠, 가지를 물고 대답하는 것쯤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설두'가 그들이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는 개암 봉(介庵 朋) 화상이 낸 이런 수수께끼가 실려 있다. "황당 무계한 소극(笑劇)의 주인공들은 모두 도적이다. 그 중 하나는 진짜 도적이요, 또 하나는 도적에게 사다리를 건네준 놈이고, 또 하나는 앉아서 장물을 챙긴 놈이다. 과연 누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겠는가. 이들을 가려낼 눈이 있다면 향엄의 진짜 속을 읽을 수 있을 것인 바, 생사의 헛바퀴로부터 벗어나길 거기에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위빠사나(Vipassana) 수행법은 '깨어봄'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불교 수행의 핵심이 바로 여기있다. 깊이 몰입되어 자기를 잊은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마음 흐름을 보는 것이 깊고 예리하게 지속되어 깨어있는 상태이다. 요즘은 위빠사나라고 하면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가리키는 말로만 알고 있는데 불교의 모든 수행은 대 소승을 막론하고 다 위빠사나인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남방 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 몸과 느낌과 마음법을 밀접하게 수행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라면 대승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은 마음 하나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여 몸과 느낌과 법을 깨닫게 하는 찾기가 있을 뿐이다. 자신의 마음을 보려는 사람은 대상에 마음이 흡여지지 않을 것이다. 대상을 보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보려하기 때문에 자연히 번뇌의 흐름이 차단되어 돌이켜 비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학의 이론이다.

삼학 가운데 세번째인 혜학(慧學)은 지혜를 닦는 것이다. 혜는 인도어 프라나(prajna) 즉 반야를 해석한 것이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이란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 생·로·병·사의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경지이다. 온갖 번뇌와 무지속에 가리워져 맹목적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스러

法數로 배우는 불교

<18>

삼학(三學) ①

◇범주스님 선화

지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빛

집착 사라진 무상·무아의 열반경지

지고마는 생명의 한계로부터 뿔뿔 벗어나 대해탈 대공명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혜는 자신과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햇빛같은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와는 다르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흔히 분석하고 추리하고 설명하는 지식적 지혜로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깨치지 못한다. 하지만 계와 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혜는 전체적인 속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상의 윤리인 계를 지키고, 일고 깨지는 자신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여 깊은 선정에 이르게 되면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던 의식들이 흡연히 깨지면서 증생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수행에 있어서 해에는 보통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처님 살법을 듣거나 경전을 읽고 알게되는 이론적 지혜인 문혜(聞慧), 문제를 스스로 사색해보고 연구해서 확실하게 되는 지혜인 사혜(思慧), 문혜와 사혜를 생각이나 사상으로써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 실천해서 얻게되는 지혜인 수혜(修慧), 수혜를 더욱 쌓아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버린 지혜인 증혜(證慧)가 그것이다. 근본불교에서는 지혜가 열리면 모든 법은 무상이요 무아요 고통이라는 것을 뚜렷히 알게되어 일체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안전한 열반의 경지를 누린다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지혜가 열리면 현실적으로 무상이요 무아요 고통인 것 같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모든 법이 진여요 청정이나 가짜라는 것을 알게되어 일체에 대한 차별심이 사라져 본래가 모두 열반임을 보게된다고 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공성(空性) 불성(佛性) 여래장(如來藏)으로 취급하기도 하면서 절대화 시키기도 한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①

무한

김용운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생활이 단순한 시절에는 가졌어야 이것, 저것, ... 정도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오지의 원시사회에서는 지금도 하나, 둘, 많다 정도의 수만을 갖고 살고 있다. 30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그저 많다고 할 뿐이다. 이 사실은 어린이의 수 세계를 관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하나, 둘, 그리고 많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정도로 수를 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발전한 인간은 1, 2, 3, ... 백, 천, 만, ...으로 수를 확장해 나갔다. 상당한 수준의 문명 사회가 되어도 만, 억 정도면 충분했다. 이때 어느 천재가 스스로 물었다. 도대체 수는 얼마나 커질 것인가? 분명히 얼마든지 수는 커질 수 있다. '얼마든지'라는 뜻은 무엇인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대답한다. 그것은 '무한'이다. 무한이란 무엇인가? 지금도 전문적인 수학자, 철학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저 '무한'이란 말이 그 이상 쓸 데 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 2, 3, 많다. 무지무지하게 많다... 라고 하는 것, 또는 원시 사회에서 1, 2, 많다, 많다, ... 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일이다.

1, 2, ... 무한이라는 것과 1, 2, 3, ... 만, 억 ..., 무한이라는 것 사이에 후자에게는 좀더 많은 수가 등장할 뿐이고 결국에는 무한으로 낙찰되는데 이들 3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많다, 또는 무지 많다는 말을 무한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불교는 무한세계를 한뫼음으로 인식 자유로운 사유 무한넘어 완결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1, 2, 3, ...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할 때는 완성된 무한이다. 조금 혼동하기 쉬움으로 좀더 자세하게 이들 두 무한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1) 1, 2, 3, ... → 무한으로 커가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2) 1, 2, 3, ...을 끝까지 포함하는 한 덩어리를 생각하는 것을 완성(완결) 무한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보거나 듣지 못한 사실도 머리 속에서는 생각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순수 사유의 철학적 세계

가 전개된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한의 시간 위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 유한의 인간이 어떻게 계속 무한으로까지 수를 셈할 수 있는가? 또는 완성된 무한은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부처가 되는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의 대상에는 제한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유로이 사유 세계를 넘나들고 유한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가 '무애(無碍)'이다.

불교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유한 세계의 극점까지 생각하고 다시 그곳에서 무한 세계를 넘어간다. 이성을 지렛대 삼아 삼상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비약을 한다.

가령 <법화경>에는 지용(地涌)의 보살 수는 5만 향하사(恒河沙)로 물술했다. 또한 각 하나의 보살에는 5만 향하사의 시종이 이어져 있다. 이 논리를 계속 전개해 가면 한 사람의 시종에 또 5만 향하사 만큼의 그 아래 종자(從者)가 있고, 또 그 아래... 라는 식으로 분출되는 수의 가능성은 무한으로 뻗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들 거대한 무한 세계 모두를 한 뫼음으로 인식, 파악하는 이성(부처의 지혜)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불교적인 지혜는 가능한 무한 세계를 넘어 완결된 무한에 접근하는 것이다. 불교적 사유에서는 늘 이 문제를 다루며 그 가능성을 따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포교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파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파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움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실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호

전 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 스 02-375-4143